

강진,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

연수원 생활관 증축 비용 180억 정부 기금으로 충당 교육생 1만명선 확대시 관내 지출예상액 120억 이상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와 수시과정 1(다산체협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능가체험인 푸소 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협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 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다. 이번 대회는 영광군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전체 24개 종목(정식 22개, 전시 1개, 시범 1개)에 전남 22개 시·군, 7314명(선수 4,640명, 임원 2,6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순위 경쟁을 벌인다.

순천시시는 이번 대회 24개 전 종목, 377명(선수 236명, 임원 1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우승을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날 결단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고, 자신감을 차 있는 선수단 여러분의 늘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자신감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매 경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순천, 제63회 전남체전 출전 선수단 결단식



24개 전 종목, 377명 선수단 참가... 메달 사냥 나서

순천시와 순천시체육회는 17일 오전 팔마올림픽기념관에서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광군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전체 24개 종목(정식 22개, 전시 1개, 시범 1개)에 전남 22개 시·군, 7314명(선수 4,640명, 임원 2,6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순위 경쟁을 벌인다.

순천시시는 이번 대회 24개 전 종목, 377명(선수 236명, 임원 1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우승을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날 결단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고, 자신감을 차 있는 선수단 여러분의 늘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자신감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매 경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무안, 농번기철 78개 마을 마을공동급식 지원 한다

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78개 마을에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영농활동에 집중하도록 자체 급식 마을에는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도시락·반찬 배달 마을에는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78개 마을(자체급식 26, 반찬배달 34, 도시락배달 18)은 지난해 대비 8%가 증가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신청마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오중 농업정책과장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관내 음식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촌마을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산 1번지’ 완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전국 수산인 1500여 명 모여 결속 다져

완도군은 17일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 강국’을 주제로 개최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4.1)로 올해는 전북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수산총연합회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주관했으며,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노동진 회장과 전국의 수산인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미래 해양수산업의 인재가 될 완도수산고등학교와 한국수산벤처대학 학생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기념사, 유공자 포상, ‘90만 수산인들과 함께 그리는 미래, 수산인의 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수산인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며, “기후변화, 경제 불황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군은 전통산업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고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 등 미래 해양산업을 역점 추진하여 더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민 권익위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 최종 권고

철거 이후 사업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조속한 추진

나주시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권고안을 시에 제출했다.

해당 드라마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보존을 통한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구조물 내진 안전성’과 ‘유지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평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권익위의 운영을 결정지을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철거 권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권고안을 시에 제출했다.

해당 드라마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보존을 통한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구조물 내진 안전성’과 ‘유지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평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권익위의 운영을 결정지을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철거 권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권고안을 시에 제출했다.

담양, 공직자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200여명 대상 특이·악성민원 분야로 교육

담양군은 소속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신현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대해 법적 지식을 통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원에 대한 분야별 대처방식에 대해 강사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 겪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민원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피해 공직자 보호와 안전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원에 대한 분야별 대처방식에 대해 강사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 겪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광양시-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고향사랑기부 1천만원 상호 기부

광양시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17일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동참했다.

이날 광양시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각 50명씩, 총 100여 명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상호 기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양 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철강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한 후 각 사회단체의 교류와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우의를 다져왔다.

이번 상호 기부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 선 제언 후 화답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이화영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광양시 자매도시 중 가장 넓은 포항시와의 고향사랑기부제 기꺼이 참여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로 양 도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기부금도 꼭 필요한 지역 발전사업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문화도시센터-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인력양성 등 맞손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전문인력 양성과 양 기관의 행사 및 활동에 상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은 국내외의 선과 해양 문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 연구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문, 생태, 역사, 생활 등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자문 협조와 전문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 고유의 문화자산의 가치 발굴과 문화인재양성 등 목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문화도시센터 이방수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문화 교류와 발전에 협력하고 섬 인문학, 생태문화, 도서관, 로컬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관리 구축 약속

영암군이 지난 16일 군청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영암군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암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부사업 유치 공동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영암군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진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호국의 보배실!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특화 과정 운영

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전남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연이어 ‘2024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로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도군의 호국역사 교육과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기 특화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으로는 ▲무궁화 유래와 호국역사 교육 ▲무궁화·태극기 그리기 교육 ▲무궁화 화분 모듬 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진도군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무궁화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